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③	2	④	3	⑤	4	④	5	①
6	①	7	②	8	④	9	②	10	②
11	④	12	③	13	⑤	14	④	15	③
16	⑤	17	①						

해설

[1~5] 문학(갈래 복합, 현대시+수필), 정답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연계 지문: 수능특강 107쪽)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비연계) / 정호승,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됩니다'(비연계)

1.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③ (가)는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 줄 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에서 알 수 있듯이 '수양 가지' 외에 담을 넘는 식물들을 활용하여 시련과 고난을 극복한 대상들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즉 '수양 가지' 이외의 존재들을 열거하여 용기를 내어 담을 넘는 일이 비단 '수양 가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나)는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의 삶에 버팀목이 되었던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을 활용하여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지탱해주었던 '버팀목'이 지닌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다)는 '제비꽃은 결코 진달래를 부러워하지 않고, 진달래는 결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에서 알 수 있듯이 저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수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꽃들을 활용하여 대상에 부여된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폭설', (나)에는 '태풍', (다)에는 '제비꽃, 진달래 꽃' 등과 같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가 있지만, 이러한 소재를 통해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② (나)에는 '허위허위'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화자의 삶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지만, (가)와 (다)에는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다)에는 '꽃들은 ~ 내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어떤 꽃을 보고 '예쁘다, 예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들은 ~ 바로 인간들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자연의 대조적 모습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를 지닌 자연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 (나)에는 인간과 자연의 대조적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는 '나는 싹피우고 꽃피우며 /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는 '꽃밭에 오로지 제비꽃만 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나)와 (다) 모두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청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에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 있지 않다.

2.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④ (나)에서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버팀목'으로 만져'진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 온 존재들(죽은 아버지, 사라진 이웃들)을 죽은 버팀목이

쓰러진 나무를 지탱해주는 모습을 통해 인식한 것으로, 이는 <보기>의 설명처럼 자연물('버팀목')을 통해 '나'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인생사의 의미를 유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해당 대상들을 응원하는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 ② 여기에서 가장 노력한 주체는 가지이다. ③ 쓰러진 가지를 지탱해 주는 것이 버팀목이다. ⑤ 버팀목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3. [출제 의도] 작품에 나타난 특정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이해한다.

⑤ (다)의 '꽃들은 ~ 내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제비꽃은 제비꽃으로 피어나 오직 조화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꽃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주위의 다른 꽃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⑥꽃밭'을 ⑥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다)의 '꽃들은 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 있는 그대로 자신을 한껏 꽃피우다가 떠날 시간이 되면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①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스스로의 가치를 빛내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② (다)의 '만일 제비꽃이 진달래를 부러워하고 진달래가 장미를 부러워한다면 ~ 인간들과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꽃들은 ~ 내가 예쁘다 내가 예쁘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고 오직 주어진 그대로 감사하며 열심히 살다가 사라질 뿐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②를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사랑하는 삶의 자세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③ (다)의 '제비꽃은 개나리와 민들레와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야 꽃밭이 아름다워집니다.', '꽃밭이 아름답기 위해서도 조화가 가장 중요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③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주위의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다)의 '제비꽃은 개나리와 민들레와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야 꽃밭이 아름다워집니다. 한 가지 꽃만 피어 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글쓴이는 '⑥ 꽃밭'을 모든 '②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빛내면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4. [출제 의도] 특정 구절에 나타난 글쓴이의 태도를 중심으로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④ (다)의 글쓴이는 한 가지 꽃만 피어 있는 꽃밭은 아름답지 않고, 제비꽃은 개나리와 민들레와 산수유와 함께 피어나야 꽃밭이 아름다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다른 꽃들과 조화를 이루며 핀 꽃밭의 꽃들처럼 인간도 주위의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④에는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회의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이 글의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시구로 볼 때 ②은 수양 가지가 담을 넘는데 원동력이 된 '담'이 지닌 가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존재('담')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지'의 처지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의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놀지 않습니다 / 이제는 /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시구로 볼 때 ③은 죽은 버팀목의 배려와 희생이 산 나무에게 힘이 되어주는 역할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에는 죽은 버팀목이 지닌 한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버

팀목에 대한 화자의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의 '아무리 남의 장점이 돋보여도 남의 장점을 통해 나의 단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그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구절로 볼 때 ⑤은 자신이 지닌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이 지닌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자신이 지닌 단점을 인정해야만 남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5.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가)의 '무엇보다'는 화자가 특정 대상을 다른 대상보다 독자가 더 주목하게 하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즉 '무엇보다'는 가치가 담을 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뿌리', '꽃', '잎', '비', '폭설' 등 보다 '담'의 역할이 더 컸음을 강조하는 맥락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는 용기를 내어 담을 넘는 일이 비단 '수양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련 가지', '감나무 가지', '줄 장미 줄기', '담쟁이 줄기'에도 적용된다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지, 가치가 담을 넘는 데에 '담'의 역할이 더 컸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도박'은 '위험한 일이나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에 손을 대는 일'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휘이고, '도반'은 '함께 도를 닦는 벗'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휘이다. 이로 볼 때 '도박'과 '도반'은 가치에게 있어서 담을 넘는다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애초에 '담'이라는 동반자가 있었기에 가치가 그토록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담'이 지닌 이종적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어휘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라는 시구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산 나무')를 버팀목('죽은 나무')이 지탱해주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이로 볼 때 '산'과 '죽은'은 '죽은 나무'인 '버팀목'이 '산 나무'에 힘이 되는 역할적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 씹이 트고 다시 / 잔뿌리를 내립니다'라는 시구로 볼 때 '다시'는 산 나무('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죽은 나무('버팀목') 덕분에 다시 생명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윽고'는 이 글의 '버팀목은 이윽고 살아 없어지고 //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놀지 않습니다'라는 시구로 볼 때 제 역할을 다한 '버팀목'이 살아 없어지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다)에서 글쓴이는 '만일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지 않으면 ~ 아마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꽃이 제비꽃답게 피어나므로써 세상을 진정한 봄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만일 제비꽃이 나팔꽃이나 목련처럼 피어난다면 그것은 봄의 비극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겸손처럼 살 때 느낄 수 있는 인간의 비극과 마찬가지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글쓴이는 '만일'이라는 가정의 표현과 '-답게'라는 특정 접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신만이 지닌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6~9] 문학(고전소설), 작자 미상, '백학선전'(연계 지문: 수능완성 72쪽)

6. [출제 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① '내 팔자가 이같이 기박하고 무상하니, 세상에 있어도 소용이 없다. 차라리 남정으로 가서 가군을 찾아서 함께 죽어서 혼백이나 의지함이 없다.' '요전에 주막 주인의 접매가, 유한림의 죽을 운수도 그 아내되는 자가 힘써 구하면 요행으로 살 수 있다 하였으니, 이제 자연 출전하여 가군의 사생을 알아서 ~ 이런 중대한 시기를 내가 어찌 방 안에서 썩은 풀과 같이 헛되어 버릴소냐?'는 조은하의 내적 독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단의 포로가 된 유백로를 생각하며 갈등하는 조은하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② 서술자의 논평을 활용하여 중심인물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꿈’에서 조은하가 낭랑이 주는 술을 마시고 ‘정신이 상쾌하며 백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힘이 능히 구정을 들고 날아서 북해를 뛰어넘을 듯하게 되었다.’고 하여 ‘꿈을 활용하여 나약한 여성인 조은하에게 신이한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이 지닌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옥에서 풀러난 조은하가 청주로 가다가 남경으로 향해가는 것은 조은하가 유백로와 재회하기 위해 공간을 이동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조은하가 겪는 고난은 전개되지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을 통해 조은하가 겪는 고난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중심인물이 변화되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은하가 겪는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② “남자가 소생하여 꿈에 본 천상의 일을 생각하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사모하는 천정배필인 유한림과 만날 희망을 품게 되었다.”를 통해 조은하는 자신이 꾸 꾸 꿈을 기반으로 유 아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군관으로서 직접 호송해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다.” / 그 말을 다시 춘남에게 전해 들은 은하 낭자는~’을 통해 군관들은 조은하가 아니라 자신들의 말을 못 믿는 춘남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그 유 아사께서는 신병으로 황제께 상표하고, 지금 고향으로 휴양하신다더라.”를 통해 유 아사는 황제의 명에 의해 벼슬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황제에게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한 후 고향인 남경으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유백로의 고향이 남경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군관의 말을 듣고 유백로를 만나고자 하는 조은하가 남경으로 행선지를 바꾼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이제 생각하니 참괴하여 마치않거니와, 나의 명이 언제 끊어질 지 모르니 어찌 서로 만날 수가 있랴. 소저는 나를 만나 볼 생각을 말고 길이 귀체를 보충하시라곤 전갈하더라.’를 통해 유 상서는 자신이 옥에서 풀러나기 어려우며, 조은하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므로, 노복에게 자신이 옥에서 풀러난 후에 은하를 만나겠다는 의중을 밝힌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내가 기주 자사로 있을 때에 소저의 정형 성덕을 알지 못하고 수월 동안을 옥중에서 칼경을 당하게 하였는데, 이제 생각하니 참괴하여 마치않거니와-”를 통해 유 상서는 조은하를 옥에 가두었던 자신의 행위를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 의도] 인물의 서사적 역할을 파악한다.

④ ㉠의 최국양은 유백로의 군량 보급을 끊어 적군에 사로 잡히게 하고, 유 상서 부부를 참소하여 옥에 갇히게 하며, 조은하를 암해하여 위기에 빠뜨리는 인물이므로 여러 인물과 갈등을 형성하여 그 인물들에게 위기를 초래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청의시녀는 ‘천상에서 주렴을 걷는’ 행동으로 조은하가 꿈을 깨도록 하여 장면 전환의 역할을 하는 인물로, 특정 인물에게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어떤 사람’은 “그 유 아사께서는 신병으로 황제께 상표하고, 지금 고향으로 휴양하신다더라.”라고 하여 춘남에게 유백로의 행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만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옥에 갇힌 유 상서와 조은하를 연결하여 서로의 처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조은하와 유 상서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물 간의 갈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주막 주인’은 ‘아내 되는 자가 힘써 구하면 요행으로 살 수 있다’는 절개를 알려주었을 뿐, 다양한 가정을 제시한 적이 없다.

9.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근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② ‘유자사는 백학선을 찾으려고 남자로 변복한 조 소년을 오래 옥중에 가두고 추궁하였으나, 그의 철석간장을 굽히지 못하여 주야로 근심하다가 하루는 홀연히 깨닫고, “소년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도 잔인하다. 백학선 잃은 것도 또한 하늘이 주신 운수나 할 수 없다.” 하고, 조 소년을 옥에서 석방하였다.’를 통해 유 상서가 조은하를 옥에 가둔 것은 유백로와 조은하를 만나지 못하도록 유자사가 엮갈리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학선을 찾기 위해서이며, 이때 유 상서는 조은하가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조은하가 ‘청주’로 ‘수백 리’를 가다가 ‘길을 돌이켜 남경’으로 간 것은, 조은하가 유백로를 찾기 위해서 행선지를 바꾼 것으로 유백로와의 재회를 포기하지 않는 조은하의 집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조은하가 ‘부유이 남자로 변복하고 유리표박한 것은 최국양의 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와 달아나던 중 부모가 사망하였으며 ‘남군의 소식을 갈 길이 없어’ 남자로 변장한 것이므로, 유백로와 재회하기 위한 과정에서 조은하에게 많은 시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조은하가 ‘자신 출현하지 가군의 사생을 알고자 하는 것은 국가의 위기 해결이라는 대의보다는 유백로와 재회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므로 자신의 애정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조은하가 ‘부채의 맹약을 보듬고 곧게 절을 지켜왔다’는 것은, 우연히 만나 자신에게 ‘백학선’을 정표로 준 유백로를 천정배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0~13] 문학(현대소설), 이태준, ‘복덕방’(연제 지문: 수능특강 162쪽)

10. [출제 의도]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② 중략 이후 부분을 통해 안 초시의 땅 투자가 실제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으나 이 결과에 대한 안 초시의 반응 “재물이란 천자 간의 의리도 배추밀 도리듯 하는 건가? 탄식할 뿐이었다”를 볼 때, 안경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고뇌가 어려우며 죄책감을 표현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중략 이전 ‘이따금 술잔은 얻어먹고, 이따금 내 방처럼 그의 복덕방에서 잠까지 빌려 자건만 한 번도, 집 거간이나 해박는 서 참위의 생활이 부럽지는 않았’에서, 안 초시가 서 참위에게 신세를 지면서도 그가 하는 일을 ‘집 거간이나 해박는’ 것으로 폄하하고 있음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중략 이후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여 안 초시의 자살을 알리지 않으려는 안경화에게 서 참위가 하는 말 “명예? 안될 말이지, 명예 생각하는 사람이 애벌저 모양으로 세상 떠나게 해”에서 안 초시의 죽음을 관청에 알리는 문제에 대한 안경화의 태도에서 참위가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중략 이후 서 참위와 안경화의 대화 장면에서 안 초시의 자살을 관청에 알리자는 서 참위에게 필적되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해 달라는 안경화의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중략 이후 서 참위와 안경화의 대화 장면에서 서 참위에게 애원하며, 나가려는 서 참위를 끌어안고 “절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거는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1. [출제 의도] 서술상 특징과 효과를 이해한다.

④ [A]에서 ‘혹혹 소매 끝을 붙여보고 손끝으로 튀겨보기도 하’는 행동이 [B]에서는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붙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라고 진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 더이상 살아갈 의욕 없이 절망감을 느끼는 인물의 심경 변화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A]와 [B] 모두 ‘조각구름’을 보며 ‘때 묻은 적삼’을 떠올리는 인물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만, 특히 [A]는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의식하는 것일 뿐 반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맥락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A]와 [B] 모두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신 구름을 중심으로 ‘때 묻은 적삼’과 대비되는 풍광 묘사가 나타나 있을 뿐이다. ③ [A]에서 드러 있는 ‘하늘’을 관찰하는 안 초시의 모습이 [B]에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인물의 소망이 드러나지는 않으므로 관찰하는 행위의 반복으로 소망의 지속을 나타낸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⑤ [B]에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인물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드러나 있기는 하나 [A]와 [B]에서 모두 안 초시는 아무 음식도 떠올리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 의도]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한다.

③ ㉠(베벌)은 여느 때와 달리 복덕방 앞에 내어 걸리지 않은 상태로 제시됨에 따라 서 참위로 하여금 의아함을 느끼게 만든다. 이로써 복덕방의 비일상적 변화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나, 이후 서술 내용으로 볼 때 서 참위는 안 초시의 죽음을 예감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서 참위로 하여금 안 초시의 죽음을 직감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손바닥)은 ‘백화화 한 톨을 얻은’ 것이자 ‘야윈’ 모습으로 ‘가만히 떨리고’ 있는 상태로 묘사되어 있어 이로써 안 초시의 마른 외양과 경제적 빈곤함이 드러난다. ‘최후의 심 진을 쥐고 있는 야윈 손바닥을 통해 안 초시의 초라한 처지가 전달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용당포와 다사도)은 ‘땀값이 삼십 배가 올랐으니 오십 배가 올랐으니 하고 줄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진 근거지로 당시의 땅 투기 열풍을 보여준다. 용당포와 다사도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이 투자한 땅에 대해 수소문하는 안 초시의 모습에서 기대감과 조바심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약방)은 ‘안 초시의 시계’ 주변에 ‘굴러져 있는 것으로 안 초시가 약방에 들어 있던 약을 먹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기로 결심한 안 초시의 비극적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⑤ ㉤(안경화 무용연구소)은 안 초시의 딸 안경화가 무용 연구가라는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공간에서 자신의 사회적 체면, 명예를 이유로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안경화의 모습이 제시되므로 인물의 위선적인 면이 드러난다는 해석은 적절하다.

13.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근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⑤ 안 초시의 좌절을 위로하기 위해 ‘청요릿것으로, 추탕 집으로 새로 두 점을 치도록 들어다닌’ 서 참위의 모습에서 안 초시를 보살피는 인물의 성격과 안 초시에게 연민을 느끼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으나, 이는 자신과 같이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주변인을 돌보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화된 현실에서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자 하는 인물의 욕망은 ‘언제든지 한번쯤은 ‘내 힘과 내 낫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려나’ 믿는 안 초시의 모습에서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관변 모씨에게’ 속은 박희환 영감과 ‘축하이 된단 말’만 믿은 안 초시는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실패함으로써 본인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인물의 모습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된 노년 세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② ‘복덕방’이 ‘다시 한 번 내 집을 쓰게 되’기를 바랐던 안 초시가 죽는 순간까지 ‘잠까지 빌려’ 잔 공간이었다는 데서 안 초시에게 복덕방은 그가 바랐던 복(福)의 공간이 아니라 그 반대의 공간으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보기>에 언급된 중심 배경의 반어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끝내 ‘안경다리’를 고치지 못한 채 ‘임’에는 괴, 얼굴은 잿빛’인 상태로 발견되고 ‘관청에’ 알려지지조차 못한 안 초시의 결말은 인물의 비극적 죽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비극적 죽음으로 종결된 삶의 비극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안 초시가 ‘단 천 원만 들여도 일만 구천 원이 되리라’는 섹속’으로 시도한 땅 투자가 ‘땅 처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에 속은 일로 드러남에 따라 ‘천자 간의 의리’를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안 초시의 꿈과 좌절을 보여줌으로써 적절하다.

[14~17] 문학(고전시가), 이담명, ‘사도친곡’(연제 지문: 수능특강 256쪽) / 이광명, ‘복관가’(비연제)

14. [출제 의도] 작품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④ <제10수>는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고 자신의 죄에 비해 임금이 가벼운 벌을 내리주었다고 생각하며 유배의 벌을 내려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모를 위로하고 있을 뿐,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제1수>는 봄이 돌아옴에 따라 풀이 푸르러지는 자연현상이 빗어 화자도 봄이 돌아오듯 고향

의 노친께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② <제2수>는 화자는 노친과 수천 리 떨어져 있는 유배의 상황을, 노모는 연세가 75세인 상황을 대구적 표현을 통해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잠 없는 중아에 눈물겨워 하'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제4수>는 '사 년', '만 리' 등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노모의 기별조차 듣지 못하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제11수>는 '높다'와 '낮다'의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일월로 비유된 임금의 행위를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5. [출제 의도] 말하기의 방식에 대해 분석한다.

③ ㉔에서 화자는 유배의 원인을 '말로장신', '석일건양', '천명', '가운'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러 가지로 성찰하면서 누구의 탓으로 원망해야 하는지 압담한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5년 전 백부인 이진유의 죄를 가리키는 '석일건양'의 영향이 자신에게 끼친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열거한 적은 없다.

[오답 풀이] ① ㉔은 '노친정사'를 헤아리는 화자가 노모의 처지를 '어의 잃은 용'과 '키 없는 배'에 비유하여 화자의 유배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㉔은 평소 노모의 일점의리를 챙겨왔음을 알 수 있는데, '독신이 무후하여 시측에 의탁 없어'를 통해 형제와 후손이 없는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㉔은 '독신이 무후하여 시측에 의탁 없어'를 통해 자신의 유배로 인해 노모를 가까이서 모실 사람이 없는 상황을 불효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㉔은 '차라리 잇자 하되' '끝끝마다' 노모에 대한 생각이 절로 일어나므로 노모에 대한 걱정을 한시도 잊지 못하는 화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6. [출제 의도] 소재의 의미와 기능을 파악한다.

⑤ ㉔는 화자가 있는 '낮은 데를 들으시고 하도를 가까이 비춤'으로써 화자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 할 수 있으며, ⑥는 노친이 있는 곳도 함께 비출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환기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㉔는 우리 모자지정을 살필 존재로 화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줄 존재라 할 수 있으며, ⑤는 노모가 계신 곳과 화자가 있는 곳의 '양지(兩地)'를 비추고 있을 달을 생각하며 노모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㉔와 ⑥ 모두 화자의 소식을 노친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② ㉔는 화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노친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존재이고, ⑥는 노친에 대한 화자의 걱정을 해소해 주는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③ ㉔는 화자의 처지를 변화시켜줄 절대적 존재인 임금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⑥는 임금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㉔는 화자에게 기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⑥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17. [출제 의도] 주어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한다.

① (가)의 '살피실 제 없사오랴'와 (나)의 '어느 날에 돌아갈까'에는 모두 유배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유배에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의 '영로는 수천 리'와 (나)의 '천산만수 막힌 길'에는 노모가 계신 고향과 화자가 있는 유배지와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각각 유배로 인한 공간적 거리감과 공간의 단절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③ (가)의 '구름이 험하구나'는 화자가 지향하는 '태행'을 알아보지 못하게 할 정도로 험한 외적 상황을 드러내므로, 숙종조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알 수 있으며, (나)의 '말로장신'은 '나이 들어 몸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음'의 뜻이므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은둔한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④ (가)의 '몸이 못 가거든 기별이나 들었으면'을 통해 노모의 소식이라도 알고자 하는 화자의 애절함이, (나)의 '호르는 사내 되어', '나는 듯 새가 되어'와 같이 불가능한 상상을 통해 노모의 곁에 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어 노모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⑤ (가)의 '유권이 박벌이라'에는 사형이

아니라 유배의 형벌이 오히려 가볍다고 생각하며 유배를 내려준 임금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으며, (나)의 '천상금계 울어 예면'에는 사면령을 내려준다면 현재의 상황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의 은혜를 예찬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